

보도시점 2023. 8. 3.(목) 11:00 배포 2023. 8. 3.(목) 08:00

한덕수 총리, 도봉구청 방문해

도봉구 공공냉방 공유사업 '셰어컨 프로젝트' 시찰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일(목)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청을 찾아 도봉구가 지난 7월 10일부터 운영 중인 '셰어컨 프로젝트'를 시찰했다.
- '셰어컨 프로젝트'는 Share와 에어컨의 합성어로, 구청 공간을 주민에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 냉방 공유 프로그램이다. 9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.
 - * 미국 시애틀과 포틀랜드, 캐나다 토론토 등도 공공기관을 쿨링센터로 지정해 주민에 개방하는 공공냉방 공유 프로그램 운영
- 도봉구는 셰어컨 프로젝트를 위해 구청 1~2층에 △대학생과 취업생을 위한 스터디룸(독서방) △아이들 놀이방(볼풀룸) △어르신 장기·바둑방 △안마 의자방 등 펜션급 인테리어를 갖춘 11개 피서 공간을 마련했다.
- 지금까지 지자체의 냉방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휴게실을 운영하거나,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. 이와 달리 도봉구의 셰어컨 프로젝트는 대도시 주거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계층·전연령 대상 공공냉방 공유 프로그램이다.
-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한 총리에게 “국민들이 뉴스를 보고 막연히 쉼터가 있다는 것은 알아도 ‘우리 동네 내가 갈 수 있는 쉼터가 어디인지’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”면서 “도봉구청은 민원 업무 보러 오시던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서 저절로 동네 사랑방이 됐다”고 했다.

- 이날 한 총리는 최근 수해를 입은 경북 예천지역 특산물인 사과즙을 도봉구민들과 나눠마시며 냉방 복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.
 - 한 총리는 “도봉구청의 시도는 구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기세 부담을 덜어주면서, 국가 전체적으로는 여름철 전력 수급에 여유를 늘리는 정책”이라면서 “지자체 별로 이런 창의적인 냉방 복지 정책을 더 많이 시도해야 한다”고 격려했다.

- 이어서 한 총리는 창동역 현대화 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.
 - 한 총리는 공사현장 근로자 휴게실의 냉방상태 등 현장근로자 폭염 보호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, “지자체와 공사책임자가 물-바람-휴식 3대 기초 수칙을 제대로 지켜 현장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- 한편, 한 총리는 지난 7월 27일 폭염 지속에 따른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조정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독려할 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한 바 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신강민 (044-200-2346)
	안전환경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44-200-2348)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양찬희 (044-200-2239)
	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임지영 (044-200-2240)